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오픈시에 과태료 부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전원회의에서 과태료 부과와 개선권고 의결 -

지난 7월 2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OpenAI OpCo LLC(이하 '오픈AI')에 대해 신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하고, "재발 방지대책 수립, 국내 보호법 준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 실태점검에 적극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권고를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한국 이용자가 존재하는 서비스의 경우, 해외 사업자에 대하여도 국내법에 따른 제재조치를 적극적으로 행하려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행보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오픈 AI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2023. 3. 20. 17시부터 2023. 3. 21. 2시 사이(미국 현지 시각 3. 20. 1시부터 10시 사이)에 오픈AI가 제공하는 챗 GPT 플러스에 접속한 전 세계 이용자 일부의 성명, 이메일, 결제지, 신용카드 번호 4자리와 만료일이 다른 이용자에게 노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중 한국 이용자 687명의 개인정보도 함께 유출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픈AI가 서비스 국가(Supported countries and territories)에 대한민국(South Korea)을 포함하고 있고, 기술보고서상 한국어 정확도가 77%에 이른다고 명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대상으로 판단하였고, 챗GPT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는 오픈AI의 자체 공지 및 국내외 언론보도 등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유출 원인은 서비스 속도 증가를 위해 오픈소스 기반 캐시(임시저장소) 솔루션에서 알려지지 않은 오류(버그)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조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 7. 26. 전체회의를 통해 오픈AI에 대한 제재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기술전문가 검토회의 등을 통해 정밀 분석한 결과, "오픈AI가 일반적으로 기대 가능한 보호조치를 소홀히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는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출 인지 후 24시간 내 신고하지 않은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점검 후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개선권고 하기로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번 조사에서는 오픈AI가 처리방침을 영문으로만 제공하고 있고, 가입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동의를 추정하는 등 별도의 개인정보 관련 동의 절차가 없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내용상 위수탁 관계, 구체적 파기 절차 및 방법, 국내대리인이 명확하지 않은 등의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 준수가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하여는 오픈시가 최근에 전 세계 서비스를 시작한 신규 사업자임을 설명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해 국내 보호법 준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출해옴에 따라, 현시점에서는 개선을 권고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규제 동향 및 향후 계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새롭게 등장한 서비스(초거대·생성형 AI)로 적용 법 규정 등이 아직 불명확한 상황에서 실태점검 및 협의 개선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의 조기 강화가 바람직하다고 보아, 챗GPT 포함 국내외 주요 AI서비스를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의 최소화를 추진키로 하고, 오픈 AI에 대해서도 적극적 협력을 개선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4. 시사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년 8월 출범 후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한 사건에 대한 제재(2020.11.25)를 시작으로 페이스북, 넷플릭스, 구글 등의 동의방식에 대한 제재(2021.8.25), 맞춤형 광고 관련 구글, 메타에 대한 제재(2022.9.14) 등 국내 사업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의 법 위반에 대해서도 한국 법상의 제재조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오픈시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글로벌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도 한국 이용자 존재 시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혀, 향후에도 해외 사업자에 대하여 국내법에 따른 제재조치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한국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되는 글로벌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화우의 정보보호센터는 오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분야에서 기업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

이광욱

T. (+82) 2 6003 7535

파트너변호사

E. kwlee@yoonyang.com

이근우

T. (+82) 2 6003 7558

파트너변호사

E. klee@yoonyang.com

이수경

T. (+82) 2 6182 8132

파트너변호사

E. sgvi@yoonyang.com

황희경

T. (+82) 2 6003 7064

선임외국변호사

E. hkhwang@yoonyang.com

장슬기

T. (+82) 2 6182 8365

변호사

E. skjang@yoonyang.com